

무등현대미술관 특별기획전 22일~5월 27일

엄기준 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엄작가의 예술 TV'에는 최근 작업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코로나 19 사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마스크'를 오브제로 삼은 작품 'Mask'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마스크가 이제는 필수품이 됐고, 그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도 하는 장치가 됐다. 작가는 한 차례 쓰고 난 마스크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떠올렸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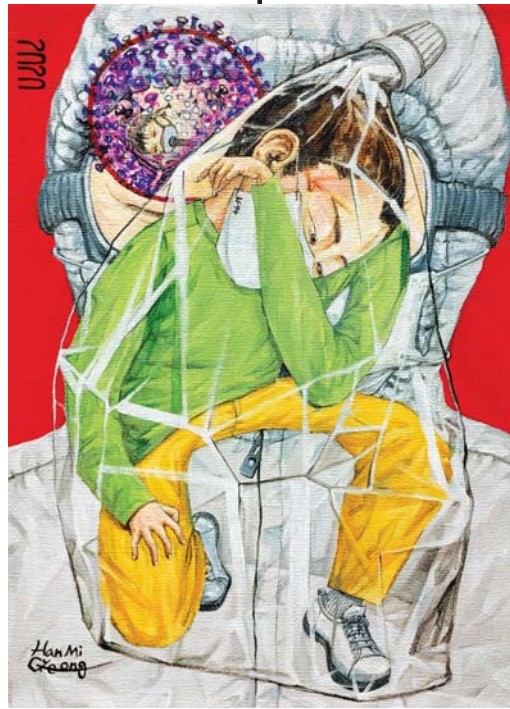
‘코로나 19’를 향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선, 희망 메시지

정예금 작家的 'slash/COVID'는 손으로 일일이 붙인 천과 지퍼, 주사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삶과 죽음 등을 상징하는 분홍색, 흰색, 검정색 지퍼와 백신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통해 치유와 더불어 '간절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정 작가는 "현재 전 세계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해 풀어낸 작품"이라며 "작가로서 이번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작가의 작품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무등현대미술관(광주지 동구 중심사길 9)은 특별기획전 'Global PURE Project COVID-19:가라카라 코로나19'전을 2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작들은 단순히 사회현상을 차용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예술가들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살피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는 관객을 맡고 있는 서양화가 정송규 작가에게서 출발했다. 전 세계인의 일상을 완전히



한미경 작 '봄 속의 마스크'



정예금 작 'Slash-COVID'



김용근 작 '비대칭의 대칭화'

전남대 '지역어기반사업단' 24일 '온-라인 화상 강연회'

전남대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강의를 '온-라인 화상 강연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BK21플러스 지역어기반 사업단'(지역어사업단-단장 신해진 국문학과 교수)이 그것.



유대현

지역어사업단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진리관 세계로강의실에서 제38회 전문기 초청강연을 비대면 온-라인 화상강연회로 진행한다. 이날 강연은 한국드라마아카데미의 유대현 대표(사진)가 '스토리텔링 기획·공모의 실제'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준비와 실제, 스토리텔링 이론의 활용과 확장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지역어사업단은 화상강연회에 참석을 원하는 대학원생, 교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먼저 전화접수를 받은 뒤, 온라인 강의에 앞서 줌(Zoom) 링크를 제공해 참여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강연 진행 후 사회자의 진행으로 질의응답도 대면강연과 똑같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어사업단에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원석·류현자·이인성 등 22명 작가 회화·판화·사진 등 작품 전시

유튜브 채널 '엄작가의 예술 TV'

미술관 홈페이지에서도 관람 가능



김용욱 작 '몸은 멀리 따뜻한 미소로 마음은 가까이'

시킨 '봄'을 선보인다. 또 다양한 색채가 돋보이는 연꽃을 주로 작업해온 류현자 작가는 기존 작품과 달리 먹빛을 함께 넣은 '꽃은 여김없이 피터이다 1'을 전시중이며 한미경 작가는 마스크에 담긴 아이의 모습을 묘사한 '봄 속의 마스크'를 내놓았다.

그밖에 정송규·김왕주·윤윤덕·박수옥·김용근·김용욱·조성숙·정강임·이인성·김하늘·이태희·김태양·성연호·고정훈 작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온라인 전시로도 만날 수 있다. 유

튜브 채널 '엄작가의 예술 TV'를 통해 22점의 전시작이 소개되며 무등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도 작품을 올릴 예정이다.

정송규 관장은 "이번 전시작들은 크지 않은 소박한 작품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과 작가들의 간절한 마음은 그 어느 작품보다 큰 것 같다"며 "온라인 전시도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작가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봄의 위로’

전남문화관광재단 온라인 기획전

5월 15일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

‘온라인 전시로 만나는 봄 소식.’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온라인 기획전 '봄의 위로[UP]전'을 오는 5월 15일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봄을 소재로 한 52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전남에서 활동하는 우수 작가 작품을 홍보·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중인 남도예술은행 소장품을 비롯해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2년차 청년예술가, 2019년 전라남도문화상 수상자, 전남예총 추천 작가 작품 가운데 선별했다.

파스텔톤의 색감이 인상적인 김연호 작가의 '나에게 토닥토닥'은 평온한 기운과 따뜻한 봄 내음을 전하며 봄을 알리는 매화가 화폭에 가득 담긴 김혜자 작가의 '매화-향기 맑은 친구야', 신애숙 작가의 '진달래 꽃따라' 등 봄꽃과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또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지호 작가의 '야단법석' 등의 작품도 전시중이다.

그밖에 다양한 기법으로 봄을 표현한 이지호·장안순·문춘길·이영미 작가의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연호 작 '나에게 토닥토닥'

‘실내악, 가곡과 아리아의 밤’

무지크바움, 27일 나주문예회관

2020년 신춘음악회 '실내악, 가곡과 아리아의 밤' 공연이 오는 27일 오후 7시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이 주최하고 나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 19로 인해 무관중 콘서트로 기획됐으며 유튜브 채널 '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에서 공연실황을 볼 수 있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서곡',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종달새', 라흐마니노프 '봄의 찬가', 푸치니 오페라 '잔니시카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라보레' 중 '혼자 거리를 걸을 때', 로시니 오페라 '세실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등이다.

또 조두남의 '산촌', '벚꽃노래', 임공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도 선보인다.

출연자는 소프라노 박경숙·김선희, 테너 서범석, 바리톤 박성훈,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김재은, 비올리스트 정호균, 첼리스트 윤소희, 피아니스트 서현일 등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선희



서현일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하루
일요일 정상 영업

